

# 조국통일 3대원칙과 북남공동선언을 높이 받들고 자주통일의 그날을 하루빨리 앞당겨오자

## 민족이 바라는 통일의 길은 ...

지금 민족의 분열은 70년을 가까이 하고있다. 외세가 강요한 이 비극은 우리 겨레에게 헤아릴수 없는 불행과 고통을 가져다주고있다. 하기에 통일은 더는 미룰수 없는 절박한 민족사적과제로 제기되고있다.

얼마전에 금강산에서 진행된 흠어진 가족, 친척상봉도 그것을 다시금 절실히 느끼게했다. 상봉의 기쁨은 잠깐, 또다시 갈라져 기억없는 리별의 세월을 보내야 하는 흠어진 가족, 친척들의 가슴속에 한결같이 울려나오는것은 《하루빨리 통일이 되어 다시 만나자.》라는 말이다.

민족의 최대숙원인 통일을 하루빨리 이루는데서 현시기 통일의 리정표와 통일위업 실현방도를 옳바로 알고 통일대강들이 밝혀주는 길을 따라 끝까지 가는것은 현시기 매우 중요한 문제이다.

우리 민족이 이루어야 할 통일은 도이쥔란드식통일도 아니고 웰남식통일도 아니며 우리 민족의 지향과 리익에 맞는 우리 식의 통일이다.

우리 식의 통일, 그것은 철두철미 자주적인 통일이고 공존공영의 평화적인 통일이다. 우리 민족의 분열은 외세가

강요한것이다. 통일을 방해하는 기본요인도 침략적인 외세의 간섭책동이다. 따라서 우리 민족의 통일은 철저히 민족자주적립장에서 해결되어야 한다. 조선반도의 통일문제는 본질에 있어서 남조선에 대한 외세의 지배와 간섭을 끝장내고 전국적범위에서 민족의 자주권을 확립하는 문제이다.

외세에 의하여 초래된 분열의 비극을 외세의 도움으로 해결할수는 없다. 통일의 주인은 우리 민족자신이며 통일을 이룩할수 있는 결정적힘도 단합된 민족의 힘이다.

일제에 의해 40여년간의 식민지노예살이를 겪고 미국에 의해 근 70년간이나 국도량단과 민족분열의 고통을 겪고있는 우리 민족이 세기를 이어오는 외세의 집요한 간섭과 지배책동을 끝장내고 민족의 자주권과 존엄을 떨치기 행사할 통일은 결코 돈이나 경제적가치로만 론할수 없다. 그보다 훨씬 더 큰 통일의 리익은 민족의 자주권확립이고 자주적발전이다.

우리 겨레에게는 이미 세계 앞에서 천명된 가장 합리적이고 공명정대한 통일원칙과 방략이 있다.

7.4북남공동성명에서 천명

된 조국통일3대원칙과 력사적인 6.15공동선언과 10.4선언이 그것이다.

자주, 평화통일, 민족대단결의 조국통일3대원칙은 나라의 통일문제를 우리 민족의 의사와 리익에 맞게 민족자체의 힘으로 풀어나갈수 있는 근본립장과 근본방도를 밝혀준 조국통일의 초석이다.

조국통일3대원칙에 기초하여 새 세기 민족자주통일의 앞길을 밝힌 북남공동선언은 우리 민족이 변함없이 높이 들고나가야 할 통일의 휘황한 대강이다.

민족의 숙원인 조국의 자주적평화통일을 이룩하는데서 우리 겨레가 변함없이 높이 들고나가야 할 기치는 력사적인 6.15공동선언과 10.4선언이다.

북남공동선언들에는 조국통일위업실현에서 나서는 원칙과 과업, 그 실현방도들이 전면적으로 밝혀져있다.

6.15공동선언은 조국의 자주적평화통일을 위한 근본원칙과 방도를 명시한 자주통일의 대강이다.

6.15공동선언은 북과 남이 나라의 통일문제를 그 주인인 우리 민족끼리 서로 힘을 합쳐 자주적으로 해결해나가야 한다는것을 밝힘으로써 우리

민족끼리를 생명선으로 틀어쥐고나가는데서 지침으로 되는 자주통일의 리정표를 마련하였다.

10.4선언은 우리 민족끼리의 리념에 기초하여 북남관계를 발전시키고 민족공동의 평화변영을 위한 방도들을 밝힌 실천강령이다.

10.4선언에는 6.15공동선언을 고수하고 적극 구현해나갈데 대한 문제, 사상과 제도의 차이를 초월하여 북남관계를 호상존중과 신뢰의 관계로 확고히 전환시켜나갈데 대한 문제, 군사적대관계를 종식시키고 조선반도에서 긴장완화와 평화를 보장할데 대한 문제를 비롯하여 북남관계와 통일운동발전에 나서는 실천적인 문제들이 명백히 밝혀져있다.

6.15공동선언의 채택으로 6.15자주통일시대가 펼쳐진 때로부터 북남관계에서는 일찌기 있어본적이 없는 경이적인 사변들이 일어났다. 북과 남사이에 여러분야에 걸치는 다방면적인 대화와 협력, 교류가 활발히 벌어지고 각계층 인사들의 대향과 접촉, 민족적화해와 단합이 두터워졌다. 반세기이상 끊어졌던 하늘과 땅, 바다길이 열리었

으며 우리 겨레의 통일운동은 전민족적인 운동으로 확대강화되었다. 이것은 6.15공동선언과 10.4선언의 정당성과 생활력에 대한 뚜렷한 확증으로 된다.

오늘날 북남공동선언들에 대한 립장과 태도는 북과 남의 화합과 대결, 통일과 분열을 가르는 시금석이다. 북남관계의 발전도, 민족의 통일과 평화변영도 북남선언들의 철저한 리행에 있다. 조선민족은 자기 문제를 자기의 의사와 요구에 맞게 자체로 해결할수 있는 충분한 력을 가지고있으며 이것은 북남공동선언의 기치따라 전진한 6.15통일시대에 실천을 통하여 확증되었다.

통일은 말로써가 아니라 온 겨레의 거족적인 노력, 북과 남의 실천적인 노력에 의해서 온다.

북과 남, 해외의 온 겨레는 조국통일3대원칙을 조국통일운동의 초석으로 삼고 우리 민족끼리의 기치높이 북남공동선언리행을 위한 거족적투쟁에 한사람같이 떨쳐나섬으로써 자주통일, 평화변영의 새 아침을 반드시 안아오아야 맞겠다.

본사기자 김철민

### 북남관계개선을 위한 적극적인 노력의 산들

얼마전 민족의 명산 금강산에서는 약 3년 4개월만에 북과 남사이의 흠어진 가족, 친척상봉행사가 감격적으로 진행되었다.

여기에서 오래동안 갈라졌던 북남의 가족, 친척들은 서로 만나 뜨거운 혈육의 정을 나누었으며 우리 민족은 결코 갈라져 살수 없는 한피줄임을 다시금 세계앞에 보여주었다.

하기에 내외의 언론들은 수십여 년만에 만나 나는 혈육들의 정은 금강산에 키를 넘겨 쌓인 흰눈도 녹일만큼 뜨겁고 강렬하다고 전하였다.

이번 상봉행사의 성과적진행은 북남관계를 개선하려는 공화국의 확고한 의지로 이룩될수 있었다.

북남관계를 개선하는것은 오래동안 갈라져 살아온 겨레의 화해와 단합을 이룩하기 위한 선결조건이며 통일의 지름길을 열어나가기 위한 첫 출발점이다.

공화국은 외세에 의해 나라가 분열된 첫날부터 조국통일을 민족지상의 과업으로 내세우고 일관하게 하나의 조선로선, 통일로선을 견지하여왔으며 북남관계개선을 위해 적극 노력하여왔다.

력사적인 7.4공동성명과 6.15북남공동선언, 10.4선언은 북남관계개선의 활로를 열어나가기 위한 길에서 공화국의 변함없는 의지와 적극적 노력, 평화변영의 함의에 의해 맺어진 빛나는 결실이다.

특히 올해에 들어와 공화국은 신년사에서 자주통일과 평화변영

의 새 국면을 열어나갈 단호한 의지를 천명한데 이어 우리 민족끼리의 단합된 힘으로 북남관계개선의 활로를 열어나갈것을 호소하는 중대제안과 남조선당국과 여러 정당, 사회단체들, 각계층 인민들에게 보내는 공개서한을 련이어 발표하였다.

신년사와 국방위원회의 명의로 발표된 중대제안과 공개서한에는 세기를 이어가며 지속되고있는 국도량단과 민족분열의 비극을 끝장내려는 공화국의 단호한 결심과 불같은 통일애국의지가 어려있다.

하기에 공화국은 북남고위급접촉도 주동적으로 제기하고 남측이 접촉에서 제기하는 문제들도 아랑있게 들어주면서 귀중한 합의가 도출될수 있게 하였다.

공화국의 대범하고 아량있는 태도, 뜨거운 동포애적조치가 없었다면 대결과 전쟁으로 치닫던 북남관계가 새해에 들어와 관계개선의 방향으로 새롭게 진척되는 놀라운 현실이 펼쳐질수 없었다는것은 두말할 필요도 없다.

북남관계를 개선하고 민족적화해와 단합, 평화와 통일로 나아가려는 공화국의 의지는 확고하며 시종일관한다.

북과 남, 해외의 온 겨레는 공화국의 중대제안과 공개서한에 천명되어있는것처럼 우리 민족끼리의 기치높이 북남관계개선의 활로를 열어나가기 위해 적극 떨쳐나서야 할것이다.

서철수

## 민족의 꽃 통일의 꽃으로

3.8국제부녀절을 맞으며 녀성은 생활의 꽃이고 가정의 꽃, 나라의 꽃이라고 사랑받아 울리는 노래는 가정과 사회의 큰몫을 맡아수행하는 녀성들의 미더운 모습을 다시금 돌이켜보게 한다.

아름답고 소박한 꿈을 안고 자식들과 남편들을 어엿하게 내세우며 사회의 일원으로서의 의무를 완만히 수행해가는 조선녀성들. 이들은 조국통일을 위한 성업에서도 당당히 자기의 몫을 수행해왔다.

통일운동사의 갈라마다에는 나라의 통일을 위해 노력한 녀성들의 장거가 력력히 새겨져있다. 그들속에는 분열의 장벽에 파열구를 내며 평양을 찾았던 남녘의 꽃나이가 대학생들도 있고 남편이 못다 걸은 통일애국의 길을 곳곳이 이어간 연인도 있었다.

격동과 환희의 6.15시대는 또 어떠했는가. 북과 남의 녀성들이 평양과 서울, 금강산을 오가며 손에 손을 맞잡고 통일을 날리며 자주통일의 기를 단합의 위력을 과시하지 않았는가. 북과 남의 녀성들의 애국적회합이었던 2002년 10월에 진행된 《6.15공동선언 실천과 평화를 위한 북남

녀성통일대회》, 2005년 9월의 《6.15공동선언실천과 반전평화를 위한 북남녀성통일연대》, 2006년 3월 진행된 《6.15공동선언실천을 위한 북남녀성대표자회의》, 2008년 5월의 《6.15공동선언과 10.4선언실천을 위한 북남녀성대표자회의》...

그 나날들은 통일의 당당한 주역으로, 민족자주통일운동의 큰 력량으로 시대와 력사앞에 등장한 조선녀성들의 장한 모습과 우리 민족끼리 힘을 합쳐 갈라진 조국을 하루빨리 통일하려는 뜨거운 애국의 마음을 온 세상에 과시한 잊을수 없는 나날이었다.

나라의 통일성업에 이바지하려는 조선녀성들의 지향과 녀성은 날이 갈수록 더욱 뜨거워지고있다.

지난해 3월 남조선의 서울에서 열린 《반전, 평화초불집회》에서는 32살의 한 평범한 녀성이 태어난지 27개월된 아이를 업고 연단에 올랐다. 그는 관중을 향해 《우리 아이는 아직 전쟁이 무엇인지 심지어 싸움의 위력을 과시하지 않았는가. 북과 남의 녀성들의 애국적회합이었던 2002년 10월에 진행된 《6.15공동선언 실천과 평화를 위한 북남

천해서 평화를 지켰는지 알려주고있다.》고 간절하게 말하였다.

이것이 바로 현시기 북과 남의 녀성들의 한결같은 소망이고 의지인것이다.

나라의 분열은 온 겨레에게 불행과 고통만을 더해주고있다.

민족의 한 성원인 북과 남의 녀성들은 하나로 굳게 뭉쳐 외세가 가져다준 분열의 비극을 하루빨리 끝장내기 위한 투쟁에 보다 거족적으로 떨쳐나서야 한다.

통일의 한쪽수레바퀴를 맡고있는 녀성들이 일떠설 때 그 위력은 이루 헤아릴수 없이 크다.

북과 남의 녀성들이 우리 민족끼리의 기치밑에 가정의 행복과 자식들의 영원한 미래를 담보하는 통일애국투쟁에 한사람같이 떨쳐나설 때 통일은 그만큼 앞당겨지게 된다.

우리 조선의 녀성들은 자신들이 지닌 책임감을 깊이 자각하고 자주통일기판차의 한쪽수레바퀴를 힘있게 떠밀어 통일애국의 길에서 뚜렷한 삶의 자욱을 남기는 자랑스러운 민족의 꽃, 통일의 꽃으로 더욱 활짝 피어나야 할것이다.

김연희

북과 남, 해외의 우리 겨레가 조국통일운동에서 새로운 전진을 이룩해나가기 위하여서는 민족의 안전과 평화 수호하기 위하여 적극 투쟁하여야 한다.

민족의 안전과 평화를 수호하는것은 조성된 정세의 절박한 요구이다.

미국의 대조선적대시정책, 북침전쟁도발책동은 민족의 안전을 해치고 조선반도의 평화를 파괴하는 기본요인으로 되고있다.

지금 미국은 민족의 화해와 단합, 북남관계개선을 바라는 우리 겨레의 지향에 역행하여 반공화국도발과 북침전쟁연습성동으로 나라의 평화를 엄중히 위협하면서 조선반도에 극도의 긴장상태를 조성하고있다.

미국의 《년례적》이니, 《방어적》이니 뭐니 하고 광고하고있지만 《키 리졸브》, 《독수리》합동군사연습은 그 규모로 보나 성격으로 보나 명백히 공화국을 무력으로 공격하기 위한 북침예비진정, 핵시연전쟁이다. 이 연습에 참가한 침략군부대들에 공화국북반부의 중요대상물들이 타격목표로 할당되어있고 이 연습체개안에서 계획된 대규모적인 연합상륙작전이라는것 역시 평양강점을 노리고있다라는 엄연한 사실만으로도 그것은 뚜렷이 실증된다.

미국의 광란적인 북침책동장난성동으로 하여 조선반도에서는 언제 어느 순간에 핵

## 민족의 안전과 평화수호는 절박한 현실적과제

전쟁이 터질지 모를 일촉즉발의 첨예한 정세가 한층한층 호르고있다.

침략과 전쟁을 반대하고 민족의 안전과 평화를 수호하기 위한 투쟁은 정의로운 애국투쟁이다.

조선반도에서 전쟁의 포성이 났을지도 이제 60년이 넘었다. 그러나 우리 겨레의 한결같은 녀념에도 불구하고 이 땅에는 아직도 공고한 평화가 깃들지 못하였다. 오히려 군사적대결과 긴장이 더욱 고조되고 다시 전쟁이 터질수 있는 위험은 날을 따라 커가고있다.

군사적대결과 전쟁위험이 고조되는 속에서 북남관계의 건전한 발전도 민족의 단합과 통일도 이룩할수 없다는것은 자명하다. 더우기 조선반도에 조성되고있는 군사적 긴장상태는 우리 민족의 생명과 안전을 엄중히 위협하고있다.

근 70년간이나 지속되고있는 나라의 분열과 그리고 인한 조선반도에서의 군사적대결로 하여 우리 민족은 이리 헤아릴수 없는 불행과 고통을 강요당하고있다. 민족의 자주적발전과 조국통일, 민족변영에 이바지되어야 할 막대한 인적, 물적재부들이 외세에게 어부지리를 주는 북남대결에 소모되고있는것은 참으로 비극이 아닐수 없다.

얼마전 평양에서는 공화국에 불법침입하였다가 적발체포된 남조선정보원 첩자 김정욱이 기자회견을 진행하였다. 그 자리에서 그는 자기가 남조선정보원의 지시를 받고 반공화국정탐행위와 반공화국종교행위를 하였다고 자백하였다.

이 소식이 전파를 타고 세상에 퍼지자 민족의 화해와 단합, 통일을 바라는 북과 남, 해외의 온 민족은 물론 세계의 사회각계는 공화국의 체제를 반대하고 와해시키기 위한 비렬한 술책에 매여달리고있는 남조선정보원을 단죄규탄해나섰다. 일이 이쯤 되었으면 남조선의 정보원은 자기가 저지른 죄에 대하여 사죄하고 그에 따른 책임을 지는것이 마땅하다.

그런데 남조선의 정보원은 어떻게 행동하고있는가. 지금 남측의 정보원은 김정욱의 기자회견내용에 대해

내외호전세력의 군사적도발과 북침전쟁책동을 짓부시고 평화를 수호하는것은 우리 민족의 운명과 관련된 사활적문제이다.

우리 민족이 대내손손 살아가야 할 삼천리조국강토를 지키고 나라의 통일과 민족변영을 이룩하자면 조선반도에서 전쟁위험을 하루빨리 제거하고 공고한 평화를 이룩하여야 한다.

이제 이 땅에서 전쟁이 터지면 그 피해를 입을것은 북과 남의 우리 겨레요 황폐화될것은 삼천리강토이다. 평화는 저절로 오지 않는다. 그것은 침략과 전쟁을 반대하는 결연한 투쟁을 통해서만 쟁취할수 있다.



조선민족이듯이 이 땅의 평화수호의 당사자도 다름아닌 북과 남의 우리 겨레이다.

전체 조선민족은 나라의 평화를 파괴하면서 민족의 머리우에 핵전쟁의 검은구름을 몰아오는 내외호전세력들의 대결과 전쟁책동을 저지과탄시키기 위한 투쟁에 더욱 과감히 떨쳐나서야 한다.

은 민족이 내외호전분자들의 침략전쟁책동을 짓부시기 위한 반전평화투쟁의 불길을 더욱 세차게 지펴올려야 한다. 우리 겨레가 사는 모든 곳에서 반전평화의 열기로 들끓고 평화수호의 함

성이 높이 울려나와야 한다. 통일로 나아가는 시대적호를에 등을 돌리거나 민족의 화해와 단합을 방해하고 이땅의 평화를 파괴하는 친미사대와 매국주협행위를 용납하지 말아야 한다.

이 땅에서 전쟁이 다시 일어나면 미국도 결코 무사할수 없다. 미국의 대조선적대시정책을 끝장내고 정전협정을 평화협정으로 바꾸며 남조선에서 침략적인 합동군사연습과 무력증강책동을 저지시키고 미군기지들을 철폐해야 한다.

전체 조선민족은 참다운 애국의 기치, 우리 민족끼리의 리념밑에 굳게 단합하여 민족의 안전과 평화를 수호하기 위한 투쟁에 거족적으로 떨쳐나섬으로써 올해에 자주통일과 평화변영의 새 국면을 열어나가야 할것이다.

최광혁

《정보원의 도움을 받았다》고 밝힌것은 전혀 사실이 아니다.》느니 《정보원과 김(김정욱)씨는 아무런 관계가 없다.》느니 하며 책임회피에 급급하고있다.

이뿐이 아니다. 김정욱이 기자회견에서 밝힌 정보원인물들에 대해 정보원은 《직원의 신원은 확

히 숨기기로 하였다.》고 우기는가 하면 나중에는 《이번 사건은 북측의 날조극》이라고 여론을 오도하고있다. 이야말로 철폐의 극치이다.

김정욱이 기자회견에서 밝힌바와 같이 그의 반공화국정탐행위와 반공화국종교행위는 철저히 남측의 정보원과 밀접히 결합되어있다.

정보원이 중국의 동북3성에 수많은 요원들을 파견하여 공화국을 내부로부터 와

《북의 날조극》이라고 우겨대는것은 그야말로 사기와 모략, 날조를 발명듯 하는 남조선의 정보원만이 할수 있는 행동이다.

최근 남조선에서 지난 시기 정보원의 전진(중앙정보부, 안전기획부)들이 발표한 각종 《간첩단사건》들이 고문과 위협, 모략과 날조로 조작해낸것들이라는것이 명백히 밝혀진 현실은 정보원이 하는 말과 행동은 거꾸로 보아야 진

실을 알수 있다는 민심의 반영이 결코 우연이 아니라는 것을 보여주고있다.

남조선의 정보원이 민족의 화해와 단합, 통일을 바라는 겨레의 지향과 시대적호를에 역행하여 공화국에 대한 비방증상과 모략책동에 광분할수록 그것은 동족대결집단으로서의 반민족적, 반통일적정체만을 더욱더 폭로시켜줄뿐이다.

본사기자 김응철



리경순